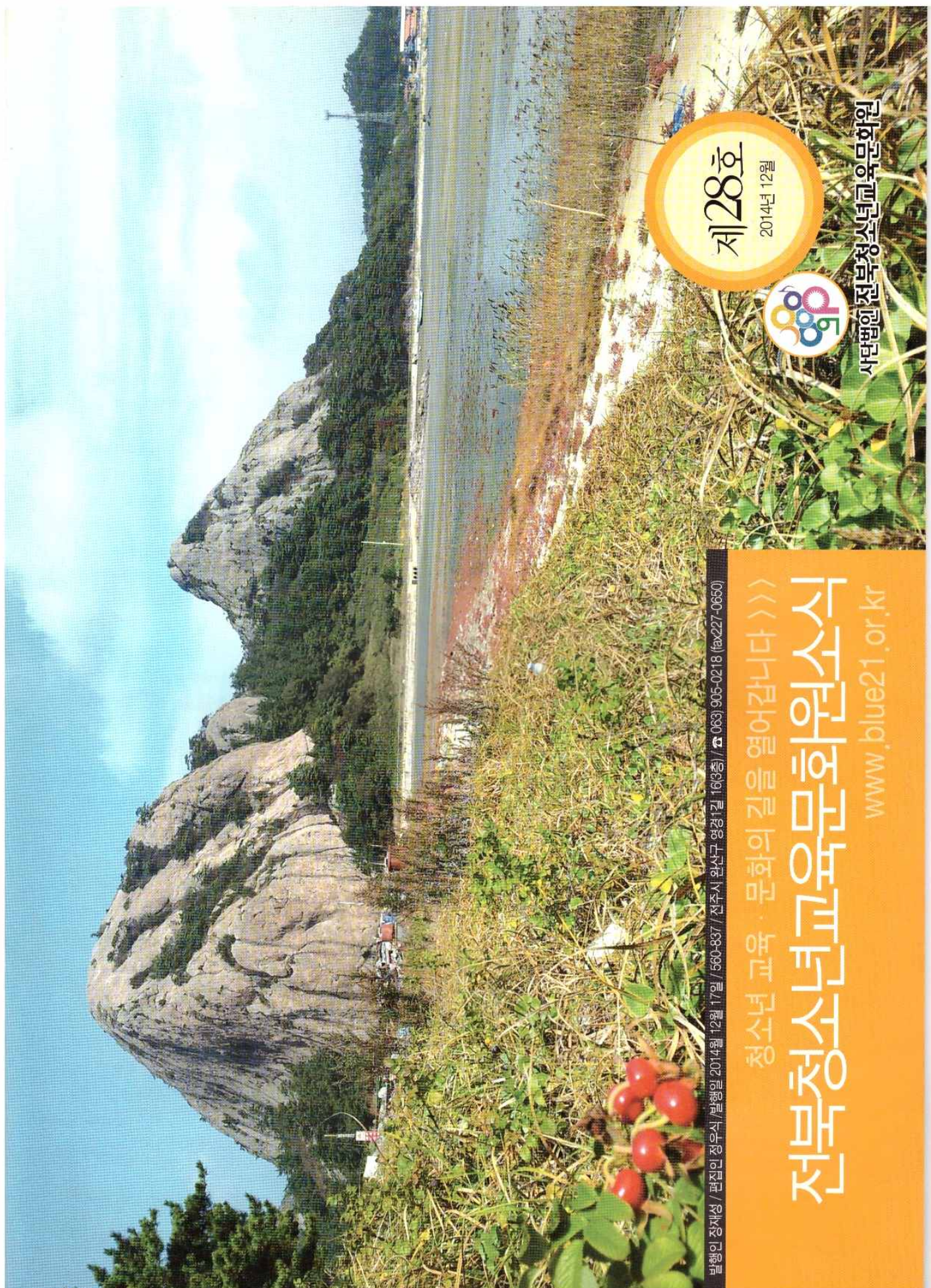




발행인 장재성 / 편집인 정우식 / 발행인 2014월 12월 17일 / 560-837 / 전주시 완산구 영광1길 16(3층) / ☎ 063) 905-0218 (fx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제28호
2014년 12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재성 이사장

회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물인 소식지도 이제야 발간합니다. 소식지를 매달 만들고 싶지만, 격조 있는 소식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과 예산 때문에 자주 만들지 못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소식지를 통해서나마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소식지에서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4년간 지속해온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세월호의 아픔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와 통일길거리농구대회를 전주대와 전주공고에서 분산 개최하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땀 흘려 농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연습해온 음악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폭력 같은 단어는 무색하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문화원은 15주년 통일한마당 행사를 더욱 성대하고 알차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전라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내년에는 문화원 자체 예산만으로 개최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문화원은 꾸준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청소년들이 기억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김진경 선생님 초청강연도 있었습니다. 김진경 선생님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과 참여정부 청와대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교육생태계가 점차 무너지는 현실을 걱정하며 교육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14년 평가와 2015년 사업 및 예산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소모임 등에서는 교육계 현안과 전북교육의 방향에 관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 선거, 누리과정 예산,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시스템, 예체능 교육, 농산어촌 교육의 현실, 도시 과밀학급·과밀학교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원 친목행사도 많이 가졌습니다. 금산사 뒷길 걷기와 고창 만들 해안 길 걷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만들 걷기 후 시골 소담한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식사는 참여자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주 종목으로 한 '체육한마당'에서 팀별로 나누어 진행한 것이나, 기념품을 소화기로 했던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택이었죠.

문화원 회원이자 국어학자인 김규남 박사께서 안내를 맡으신 선유도 기행은, 전문가의 눈과 시선을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준 행사입니다. 선유도를 그냥 훑 하고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선유도가 살아 있음을 알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2015년 2월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년 4월쯤 예정으로 10주년 기념식과 자료집 제작 등 기념사업을 준비합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지난 10년을 먼저 돌아볼 생각입니다. 10년의 문화원을, 어떤 태도로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앞으로 10년을 고민하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1월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드릴 때 항상 그랬듯이 달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달력은 특별합니다. 지난 10년의 활동사진을 넣어 만드는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년의 세월은 전라북도 교육계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달력으로 만들어 간직한다면, 기쁨이 더 커지리라 생각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송년의 밤 행사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새해 알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항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와 활동이 더욱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10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 수상자: 김혜란 전주지역아동센터장 -

소외계층 청소년 돌보며 공동생활가정 운영

시상식은 12월 19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리 문화원은 해마다 전북지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교육과 문화에 희망의 싹을 틔운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상패와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선정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김혜란 전주지역아동센터장(사진)을 선정하였다.

김혜란 센터장은 전주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특히 독서, 음악 봉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그림홈)을 운영하여 가정으로부터 위탁된 아이들 18명(초·중·고·대)의 실질적인 부모가 되어 아이들과 생활해오고 있다.

김혜란 센터장은 주5일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고,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김장나눔 행사 등 우리 문화원의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봉사를 실천해온 지역의 소중한 일꾼이기도 하다.

시상식은 12월 19일(금) 장수버섯마을(문화원 앞)에서 열리는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갖는다.



김혜란 센터장의 활동 모습(왼쪽 두 번째)

제37차 이사회 개최

2014년 활동보고 / 2015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 처리

제37차 이사회가 10월 24일(금) 오후 6시,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2014년 주요 활동보고를 받아 승인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을 처리하였다. 특히 2015년도 사업계획 중 세입·세출예산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승인하였다.

이사회를 마친 후, 이사님들은 전북교육의 미래와 우리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진지한 교육 담론을 나누었다.

글 실는순서

- 02 인사말·장재성 이사장
- 03 제10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 제37차 이사회 개최
- 04 김진경 초청 '교육이야기마당'
- 05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초청
- 06 [향토·역사·문화 걷기-11월]

- 08 [향토·역사·문화 걷기-10월]
제6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체육한마당
- 10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 12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 14 2014 주요 활동 보고
- 15 회원동정
- 16 회원 가입 신청서

김진경 초청 '교육이야기마당'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성을 꿈꾸며"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에서는 두 번째 「교육이야기마당」 주제를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성을 꿈꾸며”로 정하고, 지난 12월 2일(화) 저녁 7시, 초청 강사로 김진경 선생님을 모셨다. 언제나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5년씩은 앞서서 제시하고 설파해주셨던 선생님은, 최근에 이종현, 이광호, 한민호, 김성근 선생님과 함께 저술한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통해 교육생태계 복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바 있다. 이날 강연에는 폭설로 몇 지역에서 적지 않은 분들의 발이 묶인 가운데서도 60여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교육변화에 대한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열띤 강연과 이야기 자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이날 강연을 취재를 위해서보다 배우기 위해서 왔으며 끝까지 청취한 뒤 좋은 글을 써주시는 전라일보 이병재 교육부장의 신문기사를 동의를 얻어 옮겨 실는 것으로 대신한다.

김진경, "지역-학교가 손잡아야"



“학교교육의 위기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변하는데 학부모와 교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1989년 초대 정책실장으로 전교조 창립을, 참여정부 시절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김진경(61) 작가가 지난 2일 저녁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도내 교사들을 만났다.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성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그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Harry Harlow)가 실험했던 ‘형조원숭이’를 통해 유기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교육의 붕괴는 아이들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유기적 관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직 이후 중학교에 복직했던 2000년,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다 배우지도 않은 교과서가 찢겨져 교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대가족 제도, 또래 문화, 마을공동체 등이 살아있던 시대의 아이들은 이들의 유기적 관계 속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지만, 1990년대 들어 이런 전통적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탄생한 혁신학교는 개별화 지도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학교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성공과 달리 일반 농촌학교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원인으로 교사와 교육행정자들이 과거의 근대국가 시대의 인식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혁신학교 등 학교 단위에서 교육혁신으로 중·상층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해체 가정이나 중·하층 아이들의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중·하층 아이들이 유기적 관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또래와 지역공동체의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라며 더 나아가 갈 길은 멀지만 우리 경제, 사회가 수출 대기업, 중앙집중형 체제를 넘어서 지역 생활생태계 복원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 12. 03. 전라일보 / 이병재 기자]



교육이야기마당 - 첫 번째

“협동조합에 대하여”

-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초청 -

우리 문화원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예전에 활발히 진행하던 ‘교육이야기마당’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NGO 단체인 우리 문화원이 더 많이 배우고, 아울러 무능한 지역 교육 권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북교육에서 아예 실종되다시피 한 지역 교육의제 발굴을 선도하고자 함이다.

지난 10월 28일(화)에는 2014년 ‘교육이야기마당’ 첫 순서를 “협동조합에 대하여”로 잡고, 부안시 민발전소 소장 등,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운동을 하며 협동조합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을 우리 문화원 교육실로 초청하여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현민 이사장은 꼼꼼히 준비해온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이해가 부족한 우리를 깨우쳤고,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난 현장성 가득한 철학과 관점으로 좌중들을 일깨워주었다. 법적인 영역에서 관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참가자들의 갈증을 한껏 채워주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 정부가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복합체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한 다양한 국내·외의 사례와 여러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및 현황, 교육사업 등에 대해 고루 이야기를 열어주었다.



아름답고 아린 섬, 선유도(仙遊島) 기행

- '섬사람들의 말과 삶' 김규남 박사의 길잡이로 더듬고 보듬다. -

정우식 원장



오랜만에 선유도로 떠나는 여행이다. 11월 향토 · 역사 · 문화 견가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일찌감치 선유도로 정하였다. 몇이서 매임 없이 단출하게 떠나던 여느 견기 때와는 달리 선유도라는 이름만으로도 함께 나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전세버스까지 부르기로 하였다.

선유도는 옛 군산, 곧 고군산 여러 섬(古群山群島) 중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보통 고군산군도 전체 섬을 일컫는 이름으로도 쓴다. 선유도는 물리적으로는 그리 멀리 있는 섬이 아닌데도 신선이 노닌다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무릉도원처럼 아스라이 자리하고 있는 섬인지 모른다.

하세(下世)에 날개옷을 남겨두고 떠난 선녀만큼이나 가슴 설레게 하는

섬.

섬.

섬.

그 섬들이 몇 년 사이에 훌쩍 우리 지척에 와 있다.

무자비한 개발의 생채기인 새만금방조제가 나무꾼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에겐 하늘로 오르는 기회의 두레박일지도 모를 일. 그 뻣뻣하게 날 선 두레박줄은 이미 야미도와 신시도를 하세로 편입시킨 지 오래고, 다시는 섬일 수 없는 신시도가 돌만으로는 외로웠는지 이제 내년이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마저 연륙교를 줄 삼아 줄줄이 속세에 발을 묶어 놓게 된다.

아직은 섬인 선유도로 떠나는 마지막 기행이 될지 몰라 더 비장해지는 마음을 아는지 전날 내내 장대비로 날씨가 몹시 껄다. 눈이 땡그란 초등학교 양모 교감 선생은 정말 뱃길이 괜찮겠냐며 벌써 전화만 여러 통이다.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던가? 술한 세월 동안 날씨 때문에 행사를 그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무적의 문화원 아니던가? 굳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 날씨 앞에 선 항상 호언에다 장담까지 해온 내가 걱정 말라 단단히 이르고 강행군을 결심한다. 그래도 여럿의 생사까지 걸린 일일지 모르니 조바심에 새벽잠을 설친다. 아침까지도 날씨는 맑지 않다.

도청 앞에 모여 출발할 때만 해도 다들 확신이 없는 눈치다. 마이크를 잡고 다시금 걱정 말라 안심시키





고, 그래도 배가 뜨기 어려운 형편 이거든 육지 코스로 행로를 바꿀 테니 염려 마시라 예비안까지 제 시해준다.

버스 안에서는 서로 돌아가며 인사들부터 나누고, 김잡이를 맡은 김규남 박사에게 마이크를 넘겨 선유도와 고군산군도에 대한 해설을 부탁한다. 겨우 일주일 전에, 가벼운 기행이니 가볍게 해설을 부탁했는데 50쪽이 넘는 현장

면담조사 논문 수준의 자료집을 만들어 왔다.

김규남 선생은 내 가장 소중한 벗이다. 사회방언학을 전공하였고, 언어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실천적 이력이 있지만, 그를 일컫는 말은 어느 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그냥 '학자'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천생 학자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설명보다는 선생이 쓴 책 『눈 오는 날 싸박싸박, 비 오는 날 장갑장갑』(문학동네) 읽기를 강권한다. '전라도 말의 꽃심'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을 정말 꼭 읽으시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됨됨이며, 철학이며, 살아가는 방식까지.

유람선을 예약해둔 야미도에 도착하기까지 선생의 해설은 몇 분의 일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먼저 사람의 삶을, 특히 섬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은근히 갈아 놓는다. 자칫 한 번 지나쳐 버리고 마는 관광객의 시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단속해주는 것일 게다.

야미도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기까지 30분 남짓 남은 시간도 아까워 우리를 야미도 마을 한켠으로 데리고 나선다. 발로 뛰어다니며 연구한 현장 학자답다. 잠깐이지만 야미도와 이곳 삶을 배운다.

유람선에 오를 시간이다. 비는 개었고 하늘은 구름만 알포롭게 낀 것이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다. 바다 낮을 보니, 배 타기 또한 안정맞춤으로 잔잔하다. 모두 짜 맞춘 듯 잘 맞아 돌아간다. 속셈으로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유람선은 멀리 닭섬, 횡경도, 방축도를 오른쪽으로 두르고 선유도를 한 바퀴 빙 돈다. 왼쪽으로는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최치원 탄생설화가 얹혀 있는 굴 따위가 그림 같이 지나간다. 선유도-장자도를 잇는 구름다리를 밟을 지나 망주봉 쪽 선착장에 도착했다.

조금 걸어 망주봉을 돌아서니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다. 와! 처음 와보는 곳이 아니건만 갑탄이 절로 인다. 하늘마저 쾌청하여 선경이 따로 없다. 야미도 선착장에서 직선거리로 채 6k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별천지가 펼쳐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절경을 즐기면서도, 어떤 이는 계속 설명에 열중이고, 어떤 이들은 듣느라 여념이 없다. 밥 때 지난 줄도 다 잊은 듯하다. 김규남이라는 훌륭한 김잡이 덕에 '섬사람들의 말과 삶'을 한껏 더듬고 보듬어 왔다.

떠나올 땐 선유도 선녀님이 머리 위로 햇무리를 띄워 작별의 아쉬움을 표한다.

못다 한 이야기는 사진 몇 장으로 대신한다.



선유도라는 섬 이름의 유래가 된 '선녀님의 누워 계신 모습'이 보이시나요?

고창 만돌-동호-구시포 해안길 걷기

- 돌아오는 길엔 변산공동체 학교 축제 탐방 -

정우식 원장



이토록 아름다운 해안 길이 있을까? 고창의 만돌 해안 길은 호젓하고 단조롭다. 그래서 더욱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사계절 어느 때라도, 어느 시각에 와서 걸어도 마음에 쏙 찬다.

매달 첫 주로 계획한 걷기를, 10월엔 개천절이 연휴로 잇닿아 있어 한 주 미루었다. 10월 11일, 고창으로 향한다.

심원중학교 앞길로 만돌 갯벌체험장 바로 앞에 조성해놓은 해변공원에 도착했다. 네덜란드 풍의 풍차는 다소 어색하지만 그런 대로 봐 줄만하고, 나무 데크를 설치해놓은 것도 그리 과하진 않다. 해발 30미터가 될까 말까 한 야트막한 동산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시원하다. 변산반도가 곰소만을 건너 마주보이고, 남쪽으로는 풀둥이 반달 모양으로 운치 있게 형성되어 있다.

2km도 채 안 되는 해안 길은 낮은 바닷가 둑길이다. 일부는 바다 쪽이 터져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쪽으로 곰솔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둑 위에는 잔디가 폭신하게 고운 예쁜 길이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걷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둑 옆엔 해당화 숲이 이어진다.

만돌 길을 걷고 나서 차량으로 동호 해수욕장을 지나 구시포 해수욕장에 이르는 10km 명사십리 해변 길을 드라이브했다. 도

중에 내려 밟은 백사장이 한 없이 이어진다. 광활하다. 아직 주변에 개발의 때를 덜 탄 자연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바다에 심취하다 보니 예약해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다.

점심은 우리답지 않게 레스토랑이다. 이름도 예쁜 '하늘 땅 물 바람'. 노부부가 귀촌하여 운영하는 소담한 식당이다. 주 메뉴는 해물스파게티와 피자돈까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서비스도 모두 만족스럽다. 아이들은 시골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호사를 누린다는 듯 기쁜 표정이 가득하고, 어른들도 입맛에 딱 맞다며 아주 흐뭇해한다. 이 집을 추천한 나의 주가가 천정부지다.

만족스런 눈요기와 입요기를 뒤로 하고, 고창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엔 윤구병 선생님의 변산공동체 학교 축제날이라, 윤구병 선생님도 뵈을 겸 축제 구경도 할 겸 해서 변산반도 해안 길을 돌아 변산면 운산리 마포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변산공동체 학교를 찾았다.



막 축제가 시작된 뒤여서 가던 풀로 곧장 1층 실내마당(강당인데 웬지 이렇게 부르고 싶다)에 들어가 먼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연극을 보았다. 어설픈 구성과 연기가 오히려 부럽다. 모두 손수 짜고 쓰고 연습한 것이다. 어느 하나 귀해 보이지 않는 게 없다. 죄다 자기 삶속에서 건져낸 이야기들이다.

연극이 끝나고 마당으로 나오니 풍물굿판이 벌어지고, 한쪽에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직접 구워 만든 생활 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급자족하는 삶이니 만들어 판매도 하는 것이다. 이미 영, 정은숙 선생을 비롯해서 함께 간 이들이 자기 한두 점씩 사들었다. 꼭 어디 구체적인 쓰임새가 있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그런 것이다.

두부며, 부침개거리며, 먹거리 장터 음식들도 모조리 예서 난 것들이다. 그도 모를 일이지만 아마 막걸리만 어딘가에서 공급받았을 터. 아이들의 전 부치는 솜씨는 서툴지만 보기 좋다. 손이 떨리지만 그닥 서두르는 이도 없다. 젓가락이 모자라면 필요한 이가 구해오면 되는 것이다.

막걸리를 권하는 윤구병 선생님의 수더분하고 따뜻한 환대가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한다.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고 할아버지다. 곁에 잠시 머문 것만으로도 영혼이 달랠을 받은 듯하다. 의경심이 우러난다. 간디 선생이 우리 곁에 계시구나!



제6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체육한마당



제6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체육한마당 역시 5월에 개최하던 상반기 행사를 하반기로 옮겨서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주전라중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날짜를 옮긴 데다 결혼식 절정기 한복판 길일에 위낙 잘(?) 잡은 탓에 예상대로 회원님들이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훈훈했다. 회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개인별, 종목별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의 대항으로 하지 않고, 대충 치밀하게(?) 팀을 나누어 매우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목 중심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치열함은 다소 덜했지만, 우리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이 행사의 취지에 더 잘 부합하였다는 느낌이었다.

또 행사 기념품과 경품을 고민하다가, 안전의식이 중요해진 만큼 경품 비용을 아껴 소화기를 기념품으로 주자는 정우식 원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가장 필

수품이지만 잘 구비해놓지 않거나 오래 방치해 두어서 쓸모없게 된 게 많은 소화기를 참가 회원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했다. 예상하지 못한 참신한 선물이어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희망 2014, 제 14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제 14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이 올해에는 처음으로 9월에 개최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와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 등 두 대회를, 우리 문화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학교,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 등이 후원하였다.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는 지난 9월 27일(토) 오전에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은 2000년 남북 두 정상(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래 1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오고 있는 대회이다.

해마다 6월에 열리던 대회가 올해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 때문에 9월로 옮겨진 데다, 2학기 개학 후 준비 기간이 짧은 탓이었는지 예년의 절반 수준인 초등 5팀, 중등 4팀 등 총 9개 팀이 참

가했지만 열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주대학교 응원단 ‘백마’의 힘차고 신나는 율동이 여는 마당 무대를 아름답게 꾸며 주었고, 임동연 사무처장의 재치 있고 매끄러운 진행은 여전히 돋보였다.

동요 ‘함께 걸어 좋은 길’, 악동뮤지션의 ‘200%’,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등의 원곡을 평화·민족화해·통일 지향적인 노랫말로 바꿔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부문은, 민족평화상(전주교대총장상) 낭산초등학교 김강욱 외 9명, 민족통일상(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서신초등학교 심동화 외 23명, 평화통일상(전주대총장상) 진안부귀초등학교 한상



민 외 5명,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 전주완산초등학교 구보은 외 3명,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전주서신초등학교 이예혼 외 7명이 수상했고, 중·고등부문은, 성심여자고등학교 조아라 외 11명이 민족통일상(전라북도교육감상)을, 전주용소중학교 이예지 외 5명이 민족평화상(전주교대총장상)을, 전주서중학교 김유민 외 7명이 평화통일상(전주대총장상)을, 전주공업고등학교 김대웅 외 8명이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13쪽 수상 내역/수상자 명단 참조]





전주서신초



전주공고



진안부귀초



전주용소중



전주서신초



전주성심여고



낭산초



전주서중



전주완산초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 중, 청소년들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는 9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전주 공업고등학교 야외농구장에서 진행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확인하면서, 통일과 민족 화해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고자 개최해오고 있는 농구대회는 총 16개 팀 8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중간고사 기간이거나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참가 팀 수가 줄었지만, 경기에 임하는 수준은 훨씬 성숙

도가 높았다는 평이다. 서로 매너 좋게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좋았고, 학생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함께 즐겼다.

며칠 전부터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계속되어서 비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행사 중에는 구름만 다소 끼어 차질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대회 결과, 우승(상패, 문화상품권 15만원, 농구공)은 전주 고등학교 지니어스 팀이, 준우승(상패, 문화상품권 10만원, 농구공)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자이언트 팀이, 3위(각각 문화상품권 5만원, 농구공)는 전주신흥고등학교 이글스 팀과 부안고등학교 팀이 수상하였다.

대회라서 성적이 갈릴 수밖에 없지만, 승패를 떠나 스스로 없이 하나 되어 자유와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은 통일의 그날, 바로 그 장면이리라.



전북교육청, 14년 동안 이어온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보조금 지원 아예 끊어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 결과

교사·학생이 함께 이루어온 소중한 통일 활동의 싹 잘라

도교육청의 2015년도 민간보조금 예산 지원 선정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올해부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선정하였는데, 우리 문화원이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며 2001년부터 14년 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온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버린 것이다.

지난해엔 600만 원이나 삭감하더니 올해엔 14년 간 지원해준 사업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지원 배제한 것이다. 사전 심사나 본 심사 어느 항목에서도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탈락시켜놓고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 참으로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다. 보수정권 하에서도 전라북도에서만 명맥을 이어온 사업이어서 더욱 아쉽다.

문화원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행주 쥐어짜듯 해서라도 자체 예산만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상 내역 - 수상자 명단



(초등)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시상내용	수상자	
	학 교	이 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서신초등학교	심동화 외 23명 (6-1 심동화, 강성구, 김범, 박남진, 박주영, 유기을, 이재성, 장현준, 조성진, 최대규, 형용연, 권아인, 김주연, 김진서, 김채린, 마해현, 박은정, 이선경, 이해진, 정다솔, 정의린, 조은서, 황지선, 6-2 유은영)
평화통일상(전주대총장상)	진안부귀초등학교	한상민 외 5명 (6-1 한상민, 정원화, 5-1 장연우, 유세희, 3-1 김은진, 강인선)
민족평화상 (전주교대총장상)	남산초등학교	김강욱 외 9명 (5-1 김강욱, 김중우, 김재욱, 김진경, 김학률, 남유빈, 이해찬, 장수란, 남호성, 3-1 남현빈)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	전주완산초등학교	구보은 외 3명 (5-1 구보은, 주연아, 진설희, 오유나)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전주서신초등학교	이예흔 외 7명 (5-1 이예흔, 고현아, 김은솔, 5-2 김준희, 이진희, 장서연, 조유빈, 6-2 유은영)

(중·고)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시상내용	수상자	
	학 교	이 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성심여자고등학교	조아라 외 11명 (2-2 조아라 2-5 김선오 2-7 유지영 1-1 장예솔 최예린 1-5 안현서 1-6 류나래피아 이다영 김수진 문나래 1-9 장예진 김민서)
평화통일상 (전주대총장상)	전주서중학교	김유민 외 7명 (1-2 김유민 김지원 김민지 조민지 박성연 이병화 하민서 1-1 김재근)
민족평화상 (전주교대총장상)	전주용소중학교	이예지 외 5명 (3-3 이예지 박지환 정범수 3-2 전수연 2-1 박채유 2-7 김은서)
민족화해상 (전주시장상)	전주공업고등학교	김대웅 외 8명 (1-5 김대웅 권혁민 김현성 김현재 유태현 이동욱 이재현 정민수 황재원)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시상내용	수상자			
	학 교	팀 명	학 년	이 름
우승	전주고등학교	지니어스	3학년	김종현, 시민섭, 이건우, 김태준
준우승	전주공업고등학교	자이언트	2학년	이중호, 강산, 정훈천, 고근원, 김채호
3위	신흥고등학교	이글스	2학년	박상호, 복현재, 신동관, 이주영
	부안고등학교	부안고	1,2학년	고동규, 김은수, 홍명근, 황근호

2014 주요 활동 보고

[편집자 주] 소식지를 오랜만에 발간하기 때문에, 중요한데도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린 소식을 달리 전할 방법을 찾다가 주요 활동 중 일부만 추려 한 데 묶어 전합니다.

- 1/2~3 신년하례회/기획회의
- 1/6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피켓 시위 [상산고 앞]
- 1/7 연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1/8 소식지 27호 발간 [2,000부 제작]
- 1/16 신년 교육간담회
- 1/21 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정은숙 이사 공동대표 취임]
- 1/24 제36차 이사회
- 2/12 2014 정기총회 [으뜸회원상-김명희(부안중)]
- 2/15 향토·역사·문화 걷기 [모악산]
- 2/26 이미영 이사 퇴임식
- 3/29 고 윤영규 선생님 추모식 참배 - 광주민주묘역
- 4/19 김주열 열사 묘소 참배
- 6/4 이미영 전 이사장 교육감선거 출마 [2위로 선전]
- 7/18 이사 간담회
- 8/22 사업평가회
- 8/23 연대: 익산청소년신문 '버리' 15주년 행사 참석
- ~24 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희망나눔 회원한마당
- 8/30 향토·역사·문화 걷기 [모악산 금동계곡]
- 9/27 희망2014, 제14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전주대 학생회관대강당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 전주공고 야외농구장			
참가 학생	지도교사	학부모/응원	총인원
300명	100명	100명	500명

- 9/29 연소회 간사 송별연
- 10/11 향토·역사·문화 걷기 [고창 만들~동호~구시포 해안 길]
- 10/18 체육한마당 / 제6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 10/21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초청 특강 [서곡사랑방 주최-문화원 장소 후원]
- 10/24 제37차 Q사회
- 10/28 교육이야기마당 첫 번째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이사장 초청]
- 11/1 향토·역사·문화 기행 [군산선유도 기행-해설 김규남 박사]
- 11/18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11/25 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 공동주최 교육정책토론회 참석
- 12/13 연대: 전북농촌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미영 송병주) 사무실 개소식
연대: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정기총회/송년의 밤 참석
- 12/19 2014 송년의 밤/제10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식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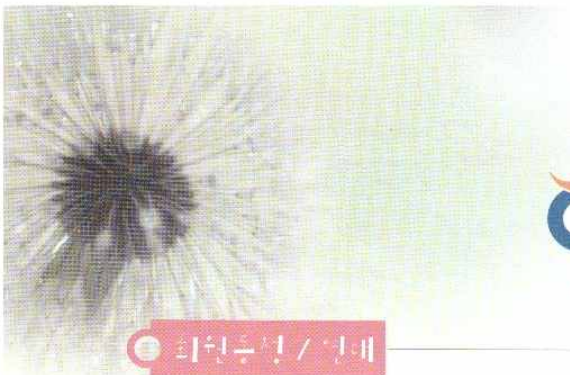
으뜸회원상 - 김명희(부안중)



고 윤영규 선생님 추모식 참배



김주열 열사 묘소 참배



회원소식 / 소개

▶ **정은숙** 이사님께서 지난 1월 21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교육운동을 해오시면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은 일만 맡아 하시고 낯내는 일에는 손사래 치셔서 대표직은 처음이신지라 주위에서 죄송한 마음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축하와 경의의 마음 보냅니다.

▶ **김윤수** 고문님께서 새로 출법하는 '사)한몸평화' 이사장님으로 애쓰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봉사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 *축 출간* **박일관** 회원(전라북도교원연수원 교육연구사)께서 혁신학교 경험을 살려 쓴 책 『혁신학교 2.0』을 출간하셨습니다.

▶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 문화원 간사를 맡아 애써온 **엄소희** 님이 또 다른 인생 설계를 위해 9월 말 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힘든 시험 준비며 공부에 한참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9일에 문화원 김행부와 장재성 이사장님, 이미영, 정은숙 이사님이 참석하여 조출한 송별연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삶과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10월 21일 서곡사랑방이 주최한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 초청 특강에 장소를 후원했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미영** 이사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북농촌교육네트워크가 평화동에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월 13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연대의 뜻을 함께하며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 결혼

우리 문화원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자,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챙겨온 일꾼 이선화 총무부장님께서 드디어 품절녀가 되셨네요. 12월 13일(토) 전주선플라워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총무님은 정말 선녀 같은 미모를 뽐냈다고 하네요.

전날 밤, 혼인을 축하하는 함박눈이 가득 내려온 세상이 순백의 아름다운 치장을 한 가운데 문화원 장재성 이사장님이 주례를 맡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문화원 식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전하게 축하해주지 않았신 분들은 원장님이 가려내 모종의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풍문이 떠돈다고 하네요. 혹 놓치셨다면 차후에라도 축하의 마음 전하셔야 후환이 없을 듯... ㅋㅋ



이미영 전 이사장 교육감 선거 2위로 선전

6·4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미영 이사님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전함으로써 유력 후보임을 과시했다.

현직 출마, 보수단일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선거운동 중단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정책선거를 진행하면서도 당당히 현직 교육감에 맞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함으로써 대안 후보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는 평이다.

현직 교육감의 1/4도 안 되는 선거비용으로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실천하고, 끝까지 정책선거를 치름으로써 역대 가장 교육감 후보다운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들었다. 특히 '고입 연합고사 폐지, 고3에게 아침밥 제공' 등은 의미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지금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
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
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이혼 판결받았습니까?
 2. 입양 사실에 대해 입양심판 결정이 있었습니까?
 3. 이혼 또는 입양이 있었습니까?
 4. 자녀 돌봄이 현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까?
 5. 배우자 또는 조부모와 이혼 또는 입양

www.blue21.or.kr / 560-837 전주시 완산구 영경 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